



착한 세상을 만드는 따뜻한 청렴 이야기

한결이의 눈물



국민권익위원회

2015 청렴콘텐츠공모전
사연(수기)부문 입선작



나는 대학교 졸업 후, 상경해
사촌언니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다

타지에서 마음 둘 곳 없었던
나에게 많은 위로와 위안을 준 건
다름 아닌 사촌언니의 딸, 조카 한결이었다



국민권익위원회

2015 청렴콘텐츠공모전
사연(수기)부문 입선작




그 누구보다 맑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,
한결이

바쁜 워킹 맘인 언니를 대신해
난 한결이를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

7월 어느 날, 나는 한결이를 데리고
시청에 갔다가 정문을 막 나서려던 길이었다
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
역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

우산을 미처 챙기지 못해 당황하고 있을 때
 때마침 **젊은 공무원 한 분이 오셔서**
 내게 우산을 건넸다

정부에서 장마철을 대비해
 “ **‘양심우산 대여 서비스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!** ”
 3일 안으로 반납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



비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
 한결이는 나에게
 '양심'에 대해 물었다

" 이모, 근데 양심이 뭐야?
 할아버지가 먹는 양갱 같은 거야? "

시청에서 우산을 빌릴 때
 우산 뒤에 있던 양심우산을 빌려드립니다.
 라는 입간판을 보고 질문했으리라...



"할아버지께서 동생이랑 나눠
먹으라고 주신 사탕을 혼자 먹지 않고,
할아버지 말씀대로 나눠 먹는 게 양심이야."

한결이는 알 듯 모를 듯한
표정을 지으며 천진하게 웃었다



사촌언니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 중
형부가 대뜸 장난스러운 얼굴로 내게 물었다

"처제, 순수한 우리 딸 영혼에
스크래치 난 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?"

언니가 그간의 자초지종에
대해 이야기 해줬다

나쁜 사람은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
경찰 아저씨가 붙잡아 가는 거죠?
이모가 며칠 전에 시청에서 양심우산을
“ 빌리고 가져다주지 않았어요. ”
그럼 우리 이모도 나쁜 사람이라서
붙들려 가는 거죠?
한결이도 영영 못 보는 거예요?

라면서 **한결이가 울더라는 것이다**



돌려줘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
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뤘었다

" 은영아, 어른은 아이의 거울이야.
애들 앞에서는 찬물도
함부로 못 마신다는 말도 있잖아.
말, 행동 모두 다 조심해야 해"



바로 그 다음 날, 날이 밝기가 무섭게
나는 우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,
버리고 왔던 내 양심을 되찾아왔다

" 한결아, 그때는 이모가 미안했어.
이모한테 많이 실망했지?
이제 '나쁜 사람' 말고 양심 지키고
사는 '좋은 사람' 될게. 사랑해"